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무주 만든다

청년정책 원활한 추진 위해 '청년안정기금' 조성... 운용심의위원회 개최·위원 위촉

무주군이 청년안정기금 마련에 나섰다. 청년안정기금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무주 정착을 돕고 군에서 진행되는 청년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 기회를 갖고, 또 자립기반을 형성하는데 꼭 필요한 재원이 될 거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통해 조성 목표액 총 30억 원을 일괄 확보할 계획으로, 3월 8일에는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군은 2027년까지 5년간 연도별 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해나갈 방침으로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20일 청년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유호연 부군수)를 개최했다.

무주군은 이날 유호연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4명(당연직)과 전북대 박정민 교수 등 회계, 세무, 청년정책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위촉직)을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운용심의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청년안정기금의 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성과 분석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



무주군은 20일 유호연 부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4명(당연직)과 전북대 박정민 교수 등 회계, 세무, 청년정책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위촉직)을 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운용심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회 유호연 위원장(부군수)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청년층 강화는 필수"라며 "무주군 청년안정기금은 청년정책의 적극적인 발굴과 시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무주에 사는 청년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고 또 안정적으로 정착한 이들을 보며 도시 청년들도 찾아오도록 하는 이중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년인구의 외부 유출과 출산율 저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

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무주군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청년층의 취·창업 지원과 청년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 사업(소통 및 교육, 정책 제공)을 위한 청년통합 지원 플랫폼을 추진(2022~2024)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청년정책팀을 신설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 청년정책 발굴 및 추진 등 무주군 전체 청년업무를 총괄 진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공공하수관로 유지관리 '최선'

진안군, 전수조사 실시

진안군은 20일 해빙기를 맞아 공공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수관로 흐름 불량구간 및 맨홀, 관로 매설 도로 침하구간 등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조사는 읍·면과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오수펌프장이 많이 설치돼 있는 지형의 높이 차이가 있는 지역에는 동절기 및 우기철 전·후 펌프 등 하수도 시설의 오작동이 잦아 맨홀 및 펌프 관련시설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우기 시 오수역류가 잦은 맨홀 유입지역에 대해서도 CCTV조사, 연막조사, 유량검토 등을 실시해 불명수 차단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우기철

이전 정비사업을 완료,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춘식 군수는 "금강과 섬진강 수계에 포함된 진안군의 맑은 물 보급 및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수변구역에 포함된 농촌마을하수도 처리구역 확대에 노력하겠다"며 "하수도 시설확대보다 더 중요한 공공하수도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수질보전과 보건환경 개선, 청정지역에 대해서도 CCTV조사, 연막조사, 유량검토 등을 실시해 불명수 차단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우기철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서 완숙토마토 수확

무주군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하우스(무주읍 당산리)에서 내외부 환경센서를 이용한 완숙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무주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하우스는 2021년 준공해 684㎡ 규모로 2연동 하우스 1동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군은 생육강도가 강하며, 착과가 안정되고 저장성이 강한 품종인 핑크토마토를 지난해 10월에 920주를 정식한 후 본격적으로 정상 가동해 2월부터 완숙토마토를 수확해오고 있다. 현재 재배중인 완숙토마토는 복합환경제어 시스템 운영으로 관수, 천창, 스크린,

난방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돼 토마토 재배환경의 최적화가 가능하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에서는 올해 토마토와 멜론 재배 예정으로, 생육데이터 및 내·외부기상(온도, 습도, CO2, 일사량)을 수집 분석하고 무주군 스마트농업 실천이 가능한 농장에 적합한 정보를 공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성호 행정안전부 안전차관과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최훈식 장수군수는 18일 장수군 재해복구 사업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풍수해대비 잇단 적극 행정

김성호 행안부 안전차관, 장수군 재해복구 사업장 방문

장수군은 지난 17일 인명피해 우려 지역 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주말인 18일에 행정안전부 안전차관과 관내 재해복구 사업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등 잇단 풍수해대비 적극 행정에 나섰다.

이날 김성호 안전차관과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최훈식 군수는 장수군 개성재 재해복구사업장을 방문해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장(편동현)으로부터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소관 시설인

개성재는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L=173m, H=21m)유실이 발생한 현장으로, 국비 8,650백만원을 투입해 제방 및 여수로 재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군은 우기가 시작되기 전 최대한 공정률을 끌어올려 제방 월류로 인한 재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재해·재난 관리는 평일·주말, 낮·밤 할 것 없이 상시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지자체의 역할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해·재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그린빌리지사업 추진 마을서 현장설명회 개최

진안군은 오는 28일까지 2023 그린빌리지 사업 추진 마을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대상마을은 진안읍(중앙1동)과 용담면(호계2), 상전면(후가막, 중기, 문화), 백운면(원촌), 마령면(원평지), 부귀면(대곡, 방각, 오복), 추천면(중리, 어자)마을 총 12개소다.

현장설명회는 마을만들기와 공동체의 이해, 진안군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 보조금 집행과 정산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진안군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은 5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마을의 자원과 현안문제 등을 발굴하고, 직접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추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의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대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한 단계 씩 밝아 올라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구직자 대상 면접활동비 최대 9만원 지급

무주군이 구직자들에게 면접활동비를 지원해 구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전북도·농상생협 플러스사업 선정으로 총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무주군로컬JOB센터 통해 구직자들에게 면접활동비 1인당 최대

9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면접 활동비는 1회당 3만 원으로 최대 1인당 3회까지 지원하며, 같은 사업장에 면접을 응시할 경우 1회만 지원하게 된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면접 활동비 지원 대상은 무주군 로컬JOB센터에 구직 신청을 한 구직자로서 관내 구인업체에서 채용 면접에 응시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참여 농가 모집

무주군이 오는 31일까지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품목의 다양화를 통한 무주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사이버장터, 축제, 행사, 직거래장터 등)을 확대, 판매망을 구축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취지에서다.

자격은 무주에 주소 및 농지소재지를 두고 본인이 직접 생산하는 농·특산물과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농가의 신청사항 및 참여 희망사항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딧불사이버장터(온라인), 전국 직거래행사(축제, 행사, 직거래장터)등에 참여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축산농가 무료 퇴비 성분검사 실시

진안군은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기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 해결 등을 위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로 퇴비 성분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2020년 퇴액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축산농가는 반드시 퇴비 부속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축분뇨 성분검사 의뢰는 액비의 경우 오염되지 않은 채수통을 준비하고, 시료를 채취기 전 시료(액비)로 4회 세척한 후 시료가 용기에 차지 않도록 500ml 이상 채취하면 된다.

퇴비는 채취한 시료를 원추형으로 쌓고 광산화하기를 반복한 후, 비닐봉투에 500g 정도를 채취하여 농업기술센터 1층 종합분석실에 의뢰하면 된다. 채수통과 비닐봉투는 농업기술센터 1층 종합분석실에 비치돼 있다.

부속도 검사 횟수는 신고대상농가(축사면적 1,500㎡ 미만)는 연 1회, 허가대상농가(축사면적 1,500㎡ 이상)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속도 판정은 신고대상농가는 부속중기 이상, 허가대상농가는 부속후기나 부속완료 이상일 때 적합으로 농경지 살포나 배출이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